

# 남북언어 이질화실태와 국복방안

###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합쳐야 하나

최호철

고려대 강사 · 국어학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이나 책을 일부 열람할 수 있고, 추려진 것이나마 간접적으로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을 안방에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단 후 반세기가 지나서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표기법이나 발음이 남한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다른 북한의 표기법이나 발음은 호기심에서 안겨오는 낯선 것이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남북한 사이에 나타난 언어의 이러한 차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갈라짐은 다른 공간과 시간을 요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 언어의 차이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민족애에 대한 정책을 각자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만 추진하고 이에 대하  
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남북언  
어의 이질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를 존  
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남북언어 이질화의  
실태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  
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살펴 다음, 이를 극복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언어와 관련된 분야로는 언어의 구조를 밝히는 이론적인 부문과 실제적인 언어생활에 관여하는 응용적인 부문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럴수록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정은 다르다. 그래서, 실제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규범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보통 남북언어의 이질화라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말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와 그 어휘를 적절하게 짜맞추는 어법으로 이루어진다. 언어의 변화면에서 볼 때 어법은 어휘에 비해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남북언어에 있어서도 어법의 차이는 쉽게 발견되지 않으나 어휘의 차이는 쉽게 눈에 띈다. 그렇다고 남북언어에서 어휘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먼저 발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경우를 보자(약 1,400개). 표기법에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취하고 있는 원칙은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이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복합어의 표기에서 북한이 더 형태를 밝혔으므로 (북한은 복합어에서 동음어인 고유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체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더 표기의 원칙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단어를 비교했을 때에는 남북한이 서로 엇바뀐 것이 많아 표기의 혼란은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는 ‘가열하다 / 가렬하다, 가죽나무 / 가중나무, 각성발이 / 각성바지, 길쭉길쭉 / 길죽길죽, 거양옻나무 / 검양옻나무, 그럴싸하다 / 그럴사하다, 뒤치다끼리 / 뒤치닥거리, 빛깔 / 빛갈, 조카뻘 / 조카벌, 안간힘 / 안간힘, 웁평눈 / 웁퍽눈, 약삭빠르다 / 약삭바르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표기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경우를 보자(약 900개). 여기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복합어(파생어)의 발음인데 사잇소리의 개체 여부가 원인이다. 이 문제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다. 남북

#### 남북한 사이에 언어이질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어의 갈라짐은 다른 공간과 시간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데 날붙어어의 차이는 이러하

의비전이 유효에서가 아니라 다른

#### **특별한 용의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언어의 발음에서 일관성 있게 눈에 띠는 차이  
는 ‘-적’의 발음으로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는 이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  
에 해당한 것으로는 ‘넓다(널따 / 넓따), 밟고  
[밥꼬 / 발꼬], 가공적(가공적 / 가공쩍), 늦여  
름(는녀름 / 느녀름), 등심(등심 / 등씸), 수놈  
[수놈 / 순놈], 지점(지점 / 지쩜), 허수(허수  
/ 허쑤), 은저울(은쩌울 / 은저울), 해시계(하  
시계 / 해씨계), 창고(창고 / 창꼬), 조상굿(조  
상끗 / 조상굿), 실감개(실감개 / 실감깨), 비  
단보(비단뽀 / 비단보), 밤송이(밤송이 / 밤송  
이), 개털리(개털리 / 개터리), 경사날(경산날  
/ 경사남)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표기와 발음이 모두 다른 경우를 보자(약 3,000개). 이는 한자말의 형태를 밝혀거나 남한에서는 비표준어인데 표준어로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표기와 발음이 달라진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는 ‘가뜩이 / 가뜩히, 가윗날(가원날) / 가위날(가위날), 구덩이 / 구뎅이, 균열(균널) / 균렬(균널), 귀살쩍다 / 귀살적다, 여성 / 녀성, 될뻔댁(될뻔때) / 될변댁(될뻔댁), 말라깽이 / 말라깽이, 벼쌀 / 벼쌀, 갈치 / 칼치, 크낙새 / 클락새, 햅쌀 / 햅쌀, 꼭두각시 / 꼭두각시, 위 / 우, 되어 / 도여, 희었다 / 희였다’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의미는 같으나 단어형태가 다른 경우를 보자. 이는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대체되는 말(단어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명명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 의미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는 ‘상이군인 / 영예군인, 화장실 / 위생실, 산책길 / 유보도 상호 / 호상, 전시물 / 직관물, 양로원 / 앙생원 보증하다 / 담보하다, 대풍년 / 만풍년, 반찬 /

식찬, 경시 / 홀시, 월동준비 / 과동준비, 항문 / 홍문, 서면 / 수표, 결과 / 후과, 저서 / 로작, 벽보 / 벽신문, 양해 / 료해, 확성기 / 고성기, 자포자기 / 자기포기' 등을 들 수 있다.

단어형태 같지만 의미해석 다르기도

다음으로 단어형태는 같으나 그 의미해석이 다른 경우를 보자. 북한에서는 뜻풀이사전의 기본원칙으로 주체성의 원칙,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현대성의 원칙, 과학성과 규범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표적인 보기 하나를 들면 ‘민족주의：민족의 독립과 자립 및 통일을 제일의 적으로 중시하는 주의. 민요나 민속 무곡 등에 표현되어 있는 자기 국가나 민족에 고유한 음계·리듬·형식 등을 사용하여 예술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주의 / 부르죠아사회에서, 착취계급의 리익을 민족전체의 리익인듯이 속이면서 다른 민족을 침해하고 민족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동적인 사상. 식민지예속국가에서, 로동 계급이 혁명의 령도권을 잡기 전에 선각자들이 들고나온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족해방사상과 그 주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리익을 위한다는 구실 밑에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배격함으로써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적 사상’과 같은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다같이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와 함께 남한에서 방언으로 처리한 것을 일부 북한에서는 표준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약 1,100개).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는 ‘가생이(가, 가장자리), 개피(개비), 거진(거의), 까실까실(까슬까슬), 꼬라지(꼬락서니), 날래(빨리), 덥수룩하다(더부룩하다), 밀개(고무래), 바시시(바스스), 빠치다(빠뜨리다), 속소리(속말), 승(흉), 잘잘하다(자잘하다), 진창(진탕), 안개비(가랑비), 얼계벗(얼레벗), 웃음감(웃음거리), 등을 들 수 있다(팔 흥 아으 난봉에서 다같이 인정한 표준어).

위에서 살핀 것 이외에도 표기수단(한자혼용-한글전용), 띄어쓰기, 외래어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남북언어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전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섞여 있다. 개별적인 것의 차이는 일일이 그 이유를 따져야 할 성질이나(표준으

# 바른글방이 이사했습니다

## 〈바른글방〉이 신촌으로 이사했습니다.

종로에 있던 바른글방이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책 만드는 일에  
이골이 났다고 감히 자부하기도 하는  
스물일곱 명 바른글방 식구들이지만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갖는 각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바른글방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 〈미필적 고의〉 가 새로 탄생 합니다.

그동안 바른글방에서 표지·일러스트 등  
책의 모양새기를 주로 해오던 디자인 팀이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책을 꾸미는 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의 독립된 집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풋풋한 개성을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 ◆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윤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 입·출력

- ◆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출·판·전·문·집·단  
**바른  
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별관 3층  
전화 325-5366(代)  
325-5363~5  
팩스 325-5362

로 정하는 언어정책기관이 각각 달라서), 전반적인 것의 이질화 요인으로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용어를 정하는 기준이며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언어관, 언어정책기관, 연구태도 등이다. 남북언어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 전자가 절대적이라면 후자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용어를 정하는 기준의 세 요소(시간, 공간, 인간) 가운데서 시간의 측면에서 남북한 공허 현대를 기준한 것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간의 측면에서 남한은 서울을 기준하는데 북한은 평양을 기준하고 있고, 인간의 측면에서 남한은 교양있는 사람을 기준하는데 북한은 근로 인민대중을 기준하고 있어 표준어로 인정되는 어휘가 달라진다.

## 언어정책의 이질화현상 불러

언어관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도구관(언어가 사고의 도구), 일체관(언어가 사고의 기관), 형성관(언어가 사고의 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집단의 언어정책과 언어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남한은 사회 전체에 내재한 특정한 언어관이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은 도구관이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남한은 언어에 대한 인위적인 개혁의지가 약한데 반해 북한은 언어에 대해 관점이 철저하여 이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언어정책기관으로 남한에는 국어연구원이 있고 북한에는 언어학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의 역사와 위상과 역할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른 시기부터 강력한 언어정책기관에 의하여 실제적인 언어의 규범화를 꾀해 왔고 이의 실행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면 남한은 그 설립 역사의 일천함과 추진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언어정책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통제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언어연구를 이론면과 응용면으로 나눌 때 남한은 이론면이 중심이고 북한은 응용면이 중심이다. 남한은 언어현상을 관찰하여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의 모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북한은 언어분야에 나타나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에 뚜렷한 해명을 주는 목적지향적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응용면과 관계없이 이론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응용면을 전제할 때 이론

면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인 언어생활의 규범화에 들이는 노력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남북언어 이질화의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남북언어 이질화 요인을 없애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남북의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을리할 수는 없다. 왜냐면, 통일국가만 이루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방안은 어찌보면 통일 후의 언어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그 준비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이다. 북한언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경상도나 전라도 방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언어자료를 최대한 쉽게 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각 대학에 북한언어연구강좌를 개설하여 북한언어에 대한 낯선 느낌을 없애야 한다. 북한언어에 관련된 자료(서사자료, 영상자료 등)만은 국립 국어연구원에서 모두 확보하고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국어학자들의 교류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운 현실정에서 국어학자들만이라도 만나서 서로의 연구정보를 교환하고 언어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국어학자회의를 상설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언어정책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반세기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언어문제에 관한 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다. 남북이 각각 일반적으로 민족어를 결코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질화의 문제는 체제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며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어학자들의 협의에 맡길 일이다.